

삶의 힘이 자라는

2020 가을 제22호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우리민천교육

미래 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에서 답을 찾다!



Cover story

미래 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에서 답을 찾다!

2020 동아시아시민학교
인천산곡남초등학교 학생이
동아시아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

44

38

30

22

19

특집 +

캠페인 +

학교돌보기 +

공감 +

정보 +

04 미래 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에서 답을 찾다!

1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형 인공지능(AI) 교육 전략을 세우다

14 기초학력책임지도 학교별 색깔있게! 내실있게!

16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미래를 담다

19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성인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본격 운영

20 「공익신고제도」 한눈에 보기

22 용정초 열린 주차장, 마음을 나누는 마을학교로 재탄생

24 2020년 원격수업 re(◀◀) 플레이

28 랜선자치(온라인 학생자치) 시대를 열어갑니다!

30 성황리에 막을 내린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32 와글와글 우리반

34 2020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36 '인천광역시교육청 X 동네책방' 산책 프로젝트

38 교육기관 최초! 코로나19 어플리케이션 '코로나19 꼼짝 마!'를 소개합니다

40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후반기 원구성

42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 우수 평가

44 생명사랑 밤길걷기 IN 인천

47 인천교육 퀴즈 이벤트



인천교육소식지 바로보기

독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인천교육소식(pjy138@ice.go.kr)"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ice.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기사,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미래 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에서 답을 찾다!

김병수 | 정책기획과 장학사

2020년 제2회 온라인 공동 교육정책 포럼 개최

2020년 9월 24일(목),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정책기획과’와 ‘민주시민교육과’가 공동주최한 ‘제2회 온라인 공동 교육정책 포럼’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이종원 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동 교육정책 포럼은 ‘미래 시민교육, 동아시아 시민교육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도성훈 교육감의 발제를 시작으로, 패널로 참석한 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정우탁 원장, 인천동막초 이경미 교사, 검암중 류진원 교사, 인천 산곡남초 김주경 학부모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포럼의 의미를 살려 유튜브 대화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 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도성훈 교육감 발제 :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인천교육의 대표 브랜드’

도성훈 교육감은 주제 발제를 통해 ‘인천의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앞으로 인천교육의 대표 브랜드가 될 교육정책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동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며 인천 바로 알기부터 시작해 동아시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교육, 참여와 실천을 배우는 국제교류를 통해 인천의 학생들이 동아시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패널 주요 토론 내용

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정우탁

“인천이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시작을 ‘인천 바로 알기’로 정한 것은 매우 현명한 방안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한국 등 16개국의 학교들 중에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동아시아시민교육 공동 온라인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인천동막초 교사 이경미

“2019년에 개발된 동아시아교육과정 성취기준과 2020년에 개발 중인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재를 활용해 내년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시민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동아시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동암중 교사 류진원

“내가 살고있는 지역에서 삶과 삶을 연결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이 동아시아시민교육이다. 나-인천-동아시아-세계시민이라는 멀티아이덴티티의 정립을 통해 내 자신과 내가 사는 고장 인천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배움과 삶이 유리되지 않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산곡남초 학부모 김주경

“저희 아이가 다니는 산곡남초등학교는 동아시아시민학교이다. ‘Learning to Live together’라는 모토 아래 다양하게 동아시아 이해, 다국어교육, 동아시아진로교육 등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과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시교육청에서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아시아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고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 특화된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통해 동아시아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도성훈 교육감은 마무리 발언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인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준비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통해 인천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학생들이 인천과 동아시아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2회 온라인 공동 교육정책 포럼 '미래 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에서 답을 찾다!' 검색



인천의 미래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으로 열어갑니다.

이성일 |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코로나19가 예고 없이 지구촌을 찾아온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기부터 우리가 겪었던 세계화의 거시적이고 구조적 차원의 상호연계성 뿐만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19 문제의 해결에서 보듯이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 지구촌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인권, 자유, 평등, 연대 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단일국가에 기반한 근대적 시민성 개념에서 벗어나,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공통 문제의 해결,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계시민교육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은 다양한 이슈와 폭넓은 지역의 범위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두는 새로운 세계시민교육의 모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인천 아이들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준비한 정책이 **동아시아시민교육**입니다.



인천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관문도시이자 국제도시로 동아시아의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인천만의 고유한 교육정책으로 **동아시아시민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세계 GDP 87조 달러 중 약 28.6%인 25조 달러를 차지하며, 전 세계 77억 1,500만 명 인구 중 약 29.3%인 22억 8,50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경제적 잠재성과 엄청난 소비 인구를 품고 있는 동아시아는 미래의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명의 보고로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정치 분야로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에서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풍부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운명공동체적 특성이 강해지는 동아시아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함께 풀어야 할 동아시아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시민교육**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동아시아가 당면한 공동의 위기상황과 문제들을 인지하고,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며,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학습 내용인 세계와 그 복잡성, 세계의 상호연계성 및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사고 기능에 관한 **인지적 영역**, 가치와 태도, 사회적 기능에 관한 **사회·정서적 영역**, 그리고 행위, 수행, 실천 및 참여, 즉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는 **행동적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영역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정책 연구를 통해 초·중·고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인천 교육은 동아시아를 향합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육과정은

학습영역

- 동아시아의 관계와 교류
- 동아시아와 세계시민교육
- 동아시아의 미래인재

8개 핵심개념

- 국가 간 상호관계
- 역사와 변화
- 환경과 문화
- 갈등과 협력
- 사회문제와 대응
- 지속가능한발전과 참여
- 지역사회의 자원
- 동아시아 전문가

2020년에는 개발된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초·중·고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재 및 교사용지도서를 정책 연구를 통해 개발중이며 2021년에는 개발된 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주요 교육 내용

- 동아시아 국가 문화와 언어 이해를 위한 다국어교육
- 동아시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평화교육
- 동아시아 국가 중점 국제교류로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방안

인천 교육은 동아시아를 향합니다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아이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미디어교육, 논술교육등 범교과학습 주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도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연계될 수 있으며, 학교 여건이 가능하다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주당 1시간 정도를 동아시아시민교육으로 배정하여 체계적으로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시민교육**은 동아시아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적 활동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시민교육은 개별 학교의 여건과 교육적 특성에 맞게 학교별로 색깔 있는 모습으로 추진돼야 하며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의 형태로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느 학교나 동아시아시민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시민학교가 된다는 것은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 이해, 행동의 실천이 교실에서 학교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이해교육, 다국어교육,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등 개별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 조성을 위한 핵심 가치들을 인천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 계획에 전반적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삶의 힘'은 지역·국가에서 자라나고 동아시아라는 커다란 공간과 무대를 통해 성장하여 세계라는 무대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시민을 양성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통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형 인공지능(AI) 교육 전략을 세우다

연수현 | 창의인재교육과 장학사

인천 인공지능교육발전 3개년 사업 추진

착한 인공지능(Good AI) 교육으로 미래로 향하는 인천교육을 이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지능정보화 시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인천 인공지능교육발전 3개년 사업 (2020 ~ 2022)을 추진합니다.



이에 앞서, 2020.7.3.(금) 우리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한선관 학회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천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인공지능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단계별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천 인공지능교육발전 3개년 사업은 「착한 인공지능(Good AI)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공지능 인재양성, 인공지능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공지능교육환경 구축이라는 3개의 핵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3개년 발전계획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뜻밖의 온라인 개학으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담론으로만 논의되던 원격교육, 스마트교육 등 디지털 기반 교육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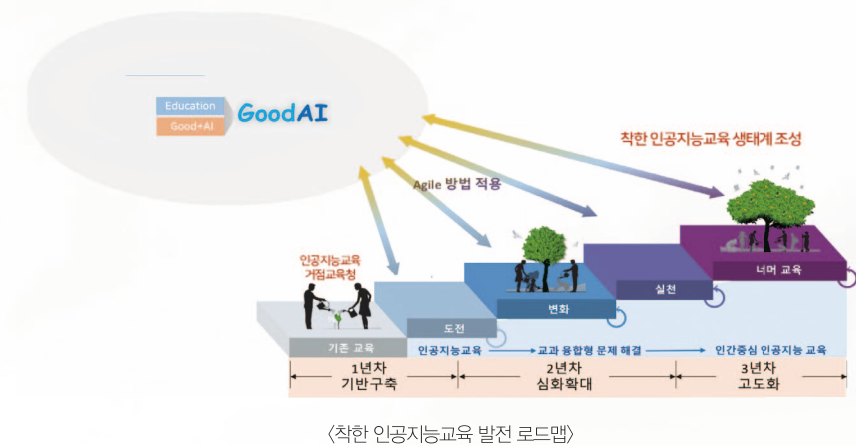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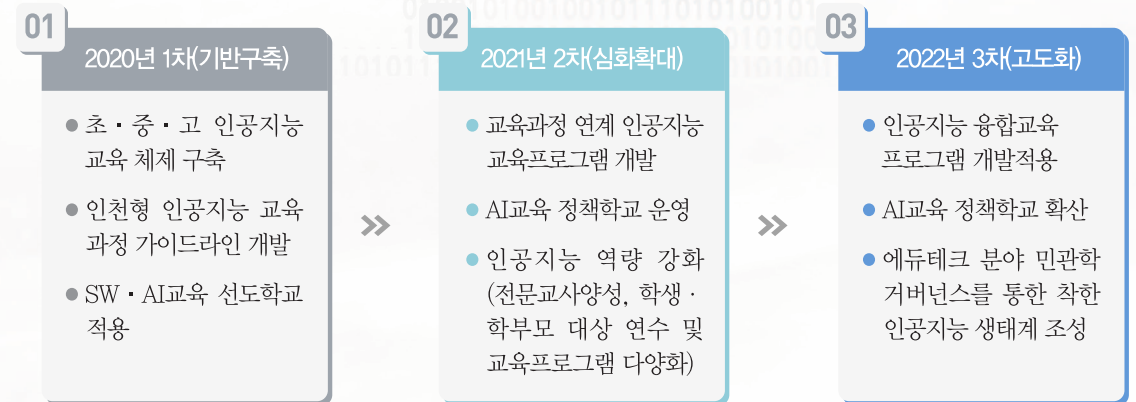
특히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더욱 빠르게 AI시대를 맞이할 것이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만 켜도, 유튜브를 검색해도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선포하였고 전 국민 대상의 AI교육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도 미래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착한 인공지능(Good AI) 교육: 인공지능교육이 기술을 통해 인간과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을 기르는 교육되어야 함을 상징하며 향후 인천교육 정책의 지표가 되는 '안심', '미래', '신뢰', '자치', '연대'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 교육발전 3개년 사업의 연도별 추진 내용은 ?

우리교육청에서는 3년간 인공지능 인재양성,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공지능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3개의 핵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의 적극 추진에 따라 교육현장의 기대 효과는 ?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크게 4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능화된 교실입니다. 무선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로 쌍방향 지능형 수업환경과 지능형 학습플랫폼을 기반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둘째는 교실수업의 변화입니다. AR, VR 등 첨단 에듀테크 도입, 디지털 교과서 및 지능형 협업 도구 활성화로 보다 실감나는 수업, 학생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학교 밖 전문가들과의 협업 수업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학생의 변화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진출할 분야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미래역량을 함양하게 됩니다.

넷째는 교육행정의 변화입니다. AI기반의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교육정책 수립으로 보다 효율적인 학교현장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교육 정책 방향은 ?

이번 온라인교육에서 경험했듯이 이제 학생들의 배움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학교안팎을 넘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대량의 지식전수가 아닌 학생 각각의 특성과 수준에 맞춘 개별화 학습이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미래로 향하는 우리 인천교육 정책은 결국 아이들의 배움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 역량 강화, 미래교실 환경 마련, 지능형 학습 플랫폼 구축, 등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소양을 갖추어 미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 한선관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인공지능이 기술적 유행이 아닌 기존 공교육 체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미래교육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이며, 지금이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연구활동과 참여, 기반구축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때입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제 인공지능도 하나의 교육적 담론이 아니라 이미 깊숙이 들어온 삶의 일부이자 생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AI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AI가 그려낼 교실의 변화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구현시키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최초 고교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

고등학교용 ‘인공지능과 피지컬컴퓨팅’ 인정교과서 개발·승인

우리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과 피지컬컴퓨팅” 고등학교용 교과서를 개발하고 최종 승인을 마쳤습니다.

최근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인공지능은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선 아직까지 공식 승인된 교과서가 없어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적용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한 발 앞선 지난 2019년에 이미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중·고등학교용 교육과정을 승인하고 교과서 개발에 조기 착수하여 2020년에는 심사 및 승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인공 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의 집필은 인공 지능 전문가와 현장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이 딥러닝, 머신러닝과 같은 어려운 이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직접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김석전 송도중학교 교사

이제까지 인공지능 분야는 적합한 수업 교재가 없어 대학 전공서적을 발췌하여 가르쳤기에 일부 동아리나 영재학급 등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인정 교과서가 학교에 도입 되면 공교육 보편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공지능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세호 광성중학교 교사

본 교과서는 인공지능으로 피지컬컴퓨팅(아두이노 등)을 제어하여 실세계와 상호작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실습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 학생들을 인공지능의 단순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생산자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된 고등학교 “인공지능과 피지컬컴퓨팅” 교과서는 보통교과의 진로선택과목 인정도서로,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 정식 도입될 것이고, 중학교 “인공지능과 피지컬컴퓨팅의 기초”는 2학기 심의를 마치고 2021년 새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

학교별 색깔있게! 내실있게!

김현진 | 초등교육과 장학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학습 기회 부족으로 기초학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이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학교별 내실있는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 중에 있다.

2020년에는 단위학교 맞춤형 학력지원인 두드림학교(사업명: 배움튼튼 더다짐지원사업)를 386교로 확대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학력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서흥초등학교

복합적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다중지원 두드림팀 협의체 구성하여 학생의 부진 요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다. 원격수업기간 중에도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방과후 담임 책임지도(대면)를 실시하기 위해 1학년 39명 대상으로 주 4일 수업내 협력교와 별도 보충지도를 실시하였다. 한글또박또박 프로그램, 읽기 학습 특성 체크리스트, 기타 한글미해득현황 파악 도구 활용한 학생별 진단 및 분석하여 1:1 맞춤지도를 통해 한글책임교육을 운영하였다. 특히 서흥초등학교는 30여개의 기관, 단체와 마을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과 연계하여 돌봄지원, 원격학습 지원, 마을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기초학력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인천장수초등학교

친친샘을 활용하여 한글, 기초수학과정을 운영하여 저학년 시기의 기초학력책임교육을 지원하였다. 친친샘은 수업 내에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하여 팀티칭 형태로 맞춤형 지도를 하는 사업이다. 학생별 저해요인 검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인 시각훈련, 인지능력향상, 동기부여, 자기관리, 사회성기술, 마음정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함박초등학교

다문화학생들의 기초학력부족이 심각하여 1, 2학년 전학급에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수업중 국어, 수학 학습을 지도하고 연계하여 방과후 한글교실, 학력교실, 두드림학교, 놀이치로 교실을 운영하였다. 특히 원격학습 중 언어소통이 힘든 학부모, 학생을 위해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기초학력지도에 대한 학생 파악과 지도를 실시하였다.



동인천중학교

전체 학생들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과 피드백을 실시하고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학생을 위해 교원들이 의기투합하여 국,영,수,사,과 과목에 대한 방과후 16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중학교 시기 문해력이 학습격차로 이어짐에 따라 문해력 쑥쑥반을 학기중 및 방학중 심화하여 운영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초학력 격차해소를 위해 '소리로 배우는 찬찬한글' 영상을 개발 보급하고 원격학습도우미, 에듀테크멘토링 사업을 통해 원격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였다.



훈민정음 제자원에 따라 쉽고 재미있게 만든 '찬찬한글 동영상' 34차시 보급



관련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리로 배우는 찬찬한글' 검색



2학기에도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 온, 오프라인 병행 담임책임지도 강화
 - 2학기 1:1 맞춤형 대면지도 운영
 - 온라인 기초학력관리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활용도 확대
- 초등 저학년 읽기 및 연산 유창성 프로젝트(400학급 운영)
- 기초학습 지도 역량 강화 지원(실천리더과정, 기초학력 매니저 과정 운영)을 운영 중에 있다.
- 기초 학력 온라인 콘텐츠 : 「기초학력 꿀팁이 쑥쑥」 제작 보급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미래를 담다

박연수 |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공간혁신의 주제를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미래를 담다’로 정하였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학교의 사용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직접 디자인 설계 등에 직접 참여하는 설계, 이른바 ‘사용자 참여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미래교실 사업은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교육, 융합적인 교육을 추구한다. 인천의 미래교실은 가변적이고 유연한 교육활동 공간, 소통과 연결의 공간, 협력의 공간, 테크놀로지 기반의 지원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2019년 미래교실 사업으로 추진된 4개 학교의 사례를 알아보자.

인천해서초등학교

행복배움학교인 인천해서초등학교는 학생 다모임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들이 절실히 원하는 공간이 쉽과 만남, 놀이를 위한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학생들의 요구를 1순위로 받아들여 ‘우주인(우리가 주인공)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해서초의 학교공간혁신촉진자 건축사 윤종인씨는 이러한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부족한 관련 시설을 보완하며, 학교 교육 방향의 기초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욕구와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낮고 좁은 공간, 넓은 공간 등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디자인이 구현되었다. 학생들은 맘껏 뛰며 에너지를 발산함과 동시에 수업 시간에는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담고 변화되는 공간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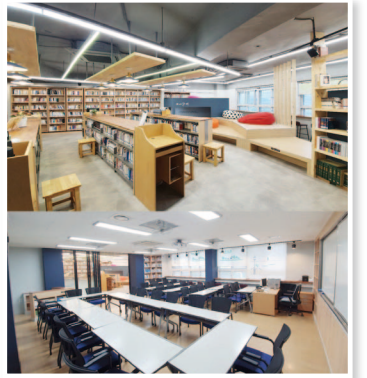


참여학생 :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 공간이다. 폭신하고 따뜻하고 즐겁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인천동암중학교

행복배움학교인 동암중학교는 전교생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과 인접교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공간인 도서관 및 도서 교육실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느낌의 공간으로,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동암중의 학교공간혁신촉진자 건축사 한진씨는 해당 공간을 어떻게 하면 전체 학생이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사용자 참여설계(공간수업프로젝트) 결과 신체활동을 즐기는 남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휴식 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활동성을 고려하여 복층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수납성이 좋은 가구와 이동이 편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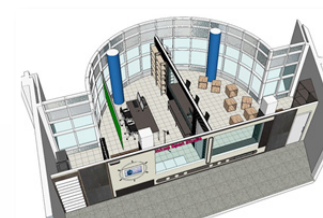
학생들이 가볍게 출입할 수 있으며, 책과 놀이 휴식이 어우러진 곳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휴식공간 및 전시실로도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참여학생 : 4월에 1학년 신입생들을 데리고 학생자치회에서 학교 투어를 진행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신입생들이 미래교실을 보고 표정이 좋아졌어요. 작년에 우리가 모여서 수업도 듣고 모형도 만들었던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되었구나 싶어서 뿌듯했습니다.



인화여자고등학교



인화여자고등학교는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동선이 집중되는 중앙통로를 학생들의 주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나아가 미래 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간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2층 방송실과 3층 휴게공간, 4층 영어교과실을 범위로 하고, 전체 학생들을 위해 중앙통로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학교공간혁신촉진자 한중훈 씨는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냈다. 2층 방송국은 라디오 모양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창을 신설하여 복도쪽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하였다. 3층 휴게공간은 기존의 라운드 부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 차이를 두어 공간을 형성하였다. 4층 영어교과실은 라운드형 벤치를 만들어서 원형극장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공간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아졌으며 색채도 아름다워져 심미적 디자인과 활용도 모두 만족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참여교사 :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밝아졌고 색채도 매우 아름다워졌어요. 학생들이 즐겁게, 편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영어교과실 천장이 너무 높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제대로 모습을 갖추어서 좋아요. 다목적실로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의 대상공간은 교실 2개의 크기로 넓은 공간이었으나, 천장이 낮아보여 답답하고 어두운 느낌을 주었다. 학교 내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쉬움을 느낀 학교공간혁신촉진자 인천대 박미진교수는 학교구성원과의 참여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서도 모둠수업을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와 같이 친숙한 공간으로 디자인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신발을 벗고 활동할 수 있는 마루로 구성하였으며, 동시에 학생들이 앉는 의자 역할을 겸하기 위해 2개의 단으로 설치하였다. 찬장 높이를 높여 답답했던 실내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목재 재료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편하고 답답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신발을 벗고 편하게 쉬면서도 모둠 수업 및 학생 간 소통이 가능한 '우미'(woomee;우리들의 미래교실)로 탄생하였다.



참여교사 :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느끼고 아이디어를 내며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의미 있는 학생중심수업이 되었습니다.



<추진의지> 기대/방향



2019년 학교공간혁신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스스로 학교공간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들 스스로 학교가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20년에도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인천의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성인지 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 본격 운영!

전남속 |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2020년 성인지 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을 2학기 개학과 함께 지정·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성(性) 사안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치료·보호·선도·회복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성인지 대안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지정된 3개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9.10. 성인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참사랑학교' 지정서 전달식〉

참사랑학교, 조이디딤학교 의료기관과 연계된 위탁교육 기관으로 성인지감수성 등 관계향상교육, 상담치료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성인식개선과 회복을 통해 올바른 인권 의식과 사회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형 성인지회복위탁교육기관

꿈이루미학교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기숙형 성인지통합지원 교육기관

앞으로 학업중단 위기로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성인지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발전시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성인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성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처벌이 아닌 교육·선도·회복으로 전환하고, 지역의료기관 및 성폭력 전문기관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익신고 제도」 한눈에 보기

서민수 | 감사관 주무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용기,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공익신고기관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 공익신고기관 : 피신고자 소속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분 야	내 용
건 강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안 전	부실시공, 산업안전 조치 미준수 등
환 경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소비자의 이익	원산지 표시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공정한 경쟁	가격 담합,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채용 청탁·강요, 거짓 채용 광고 등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	내 용
문서 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
구술 신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신고



공익신고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신고 방법	내 용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인천시교육청 감사관(☎ 032-420-8160)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공익신고)(www.ice.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인천시교육청 감사관(남동구 정각로 9)

용기에 대한 보답은 신뢰로,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금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경우 보호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 관련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치료·이사·소송·임금 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상을 바꾼 용기, 공익신고 사례

-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 신고
-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 신고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타일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사업부지내 무단 매립한 자 신고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안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3개 법률이 새로이 추가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20. 11. 20.에 시행됩니다. 앞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용기 있는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듯이,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모두 함께 동참해주세요.

인천용정초 열린주차장, 마음을 나누는 마을학교로 재탄생

이종숙 | 인천용정초등학교 교장

수봉공원 언덕배기 고불고불한 골목을 지나 독정안길 끝자락에 들어서면 기분 좋아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잘 정돈된 부설주차장과 주변의 예쁜 벽화 담장과 풍성한 꽃들...

2020년 3월 학교장으로 부임하고 6개월 여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가꾸고 다듬어 지는 인천용정초등학교 교정의 모습입니다.

인천용정초등학교는 40여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원도심의 학교로써 주변환경은 도로가 비좁고, 빼곡히 들어선 개인 주택들로 둘러 쌓여 있어, 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 또한 턱없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전임 교장 선생님때부터 학교주변 안전한 학생통학로 확보, 학교 내,외부 건물 환경개선 사업 추진과 동시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인천용정초등학교 & 미추홀구가 학교시설 주민 개방 협약**으로 2019년 10월부터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공유주차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미추홀구에서는 학교 주변 가로등 정비 및 CCTV설치, 야간 시간대 통합 주차관리센터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자율방범대 순찰 및 즉각 출동 조치를 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에 온 마을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에서 향후 5년간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5년간 지원하기로 확약함으로써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였고, 학교교육경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부설주차장 내부 벽에 전 교직원들이 협동심을 발휘하여 학생들이 동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멋진 벽화도 그려놓았으며, 학생 및 교직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이 있는 학교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문 정면 외부 공간에 파고라와 그네를 설치하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꾸며놓았습니다.

또한 잡초가 무성했던 화단들은 교직원들의 열정과 땀으로 멋지게 일구어져 20여 종의 야생화 씨앗을 뿌렸고, 현재 본교의 모습은 우리 학생들의 다재다능한 능력처럼 꽃들 또한 형형색색으로 자신만의 화려함을 뽐내며 피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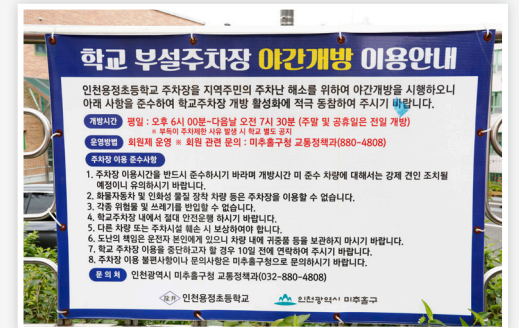
“우리 인천용정초등학교로 꽃구경 오세요” 손 흔들며 인사합니다.

주변의 많은 나무들과 수봉공원의 맑은 공기, 그리고 인천용정초등학교의 시설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마치 경치 좋은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한때 폐교 위기에 놓여 있던 학교가 지금은 다니고 싶은 학교, 마음을 나누는 학교로 재탄생하여 학생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복배움학교로 새로 지정되어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로서 인천 혁신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인천용정초등학교에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 교육’ 실현에 앞장 서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한 개 학년만 등교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인천용정초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하여 편안하게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도심 속 전원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 원격수업 re(◀◀) 플레이

코로나19로 진행된 원격수업!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선생님의 노력!
온라인 수업 사례 및 소감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사회&융합 교과특성화학교 간 연합 프로그램 “로드 투 랜선 북 토크”

현지호 | 인천여자고등학교 교사

▶ 수업 개요

- 주 제 : 교과특성화학교 간 연합 온라인 독서 토론 캠프 운영
- 대 상 :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신청자 82명 (교과특성화 고등학교)
- 단 원 : 사회
- 사용툴 : ZOOM, 카카오톡

▶ 현장의 목소리

코로나19는 학교 현장에 방역과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예년과는 다른 환경으로 인해 서로 소통하며 탐구하는 학생 캠프나 동아리 활동 등 대면 교육이 일부 제한되었다. 학생 중심 교육은 계속 되어야 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학교 교육의 다양성은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만 했다.

▶ 새로운 프로그램의 탐색

사회 교과 관련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7개교(대인고, 송도고, 인천대건고, 인천해송고, 인하사대부고, 인천여고, 인천초은고)는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협력체를 구성하고 매 학기 1~2회씩 교과특성화학교 간 연합 프로그램을 운영 해왔다. 하지만 예년과는 다르게 코로나의 위협에서 안전하면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새로운 비대면 프로그램이 필요 했다. 이에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카카오톡과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 아이디어 회의를 계속 했다. 오랜 논의 끝에 기존의 독서 토론 캠프를 비대면 “로드 투 랜선 북토크”로 전환해보기로 하였다.

▶ 온라인 캠프를 위한 준비

캠프는 학기별 1회씩 학년별로 분할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1학기는 학교당 12명씩 2학년 학생을 모집하여 총 8개 모둠으로 편성하였다. 8개의 모둠에는 각각 지도 교사를 배정하고 배정된 지도 교사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모둠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하였다. 사용 플랫폼은 소회의실 운영이 가능한 ZOOM을 사용하였다. 총 8개의 모둠이 각각 운영되는 방식이기에 개별 교사의 역량에만 기대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전체적인 통일성이 깨질 수 있었다. 그래서 온라인 토론 활동에 경험이 많은 대인고 김관성 선생님을 중심으로 ZOOM 교사 연수 및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몇 차례 진행하여 지도교사 간 생각을 공유하고 운영 방식을 큰 틀을 맞춰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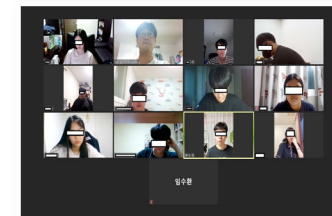
‘로드 투 랜선 북 토크’ 일정(G 모둠 사례)

– 토크 도서명: 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이야기(조정진 지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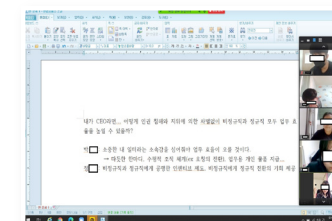
구분	7월 1일(수)	7월 2일(목)	7월 3일(금)
학생 활동	1교시 ● 3일간 일정 소개(교사) ● 자기소개(이름, 학교, 참여 동기, 관심 분야 등)	● ‘최고의 토의 주제’에 대한 생각나눔 (1일차에 선정된 최고의 토의 주제에 대한 개인별 생각 발표)	● 전체 토의 준비 활동 ● 소회의실로 이동 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선정하고 해결 방안 토의
	2교시 ● 첫 번째 일터 ①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공유 ② 함께 생각해 볼 문제(토의 주제) 한 가지 제시	● 두 번째, 세 번째 일터 ①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공유 ② 첫 번째, 네 번째 일터 내용에서 ‘1개 질문 만들기’와 만든 이유’ 소개	● 전체 토의 (전체 회의실로 다시 모여 각 그룹이 모색한 해결 방안 공유)
	3교시 ● 네 번째 일터 ①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공유 ② 함께 생각해 볼 문제(토의 주제) 한 가지 제시	● 개인별 최종 생각 나눔(도서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하기 – 사회적 약자, 편견과 차별, 나의 생각 등)	● 북토크 정리 ① ‘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및 소감 발표 ② 영상 시청(저자 인터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면 쓰게 하자.



교사 주도 생각 나누기



학생 주도 토의

사전 지도교사 회의 때 가장 걱정했던 일이 프로그램 운영 첫째 날부터 벌어졌다. 생각 보다 학생들은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시뮬레이션에서 공유한 글귀들과 교사의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교사가 말이 많아지는 일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었다. 비대면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어색함을 풀어야 했다. 우선 학생들 입가에 묻은 생각들을 종이에 털어내게 하고 읽게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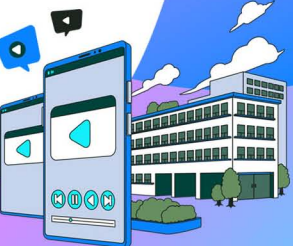
2교시가 시작되고 매 주제마다 학생들에게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5~10분 정도씩 주고 글로 쓰게 하였다. 그러자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리된 언어로 편하게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으면서 학생들은 스스럼없이 의견을 말하며 대화가 이어졌다. 지도 교사는 사회자이자 ZOOM 화면 공유기능을 활용한 서기가 되었다.

첫째 날과는 달리 둘째 날은 1교시부터 매 주제마다 별도의 생각 정리 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유연하게 활동이 진행되었다. 토의와 토론의 사회자도 학생들이 맡게 하였고

자연스럽게 생각들이 오갔다. 셋째 날은 학생들의 열띤 대화에 시간이 부족하기까지 했다. 행사를 마치고 학생들의 발언들을 정리하면서 가슴에서 진한 여운이 밀려왔다. 다른 지도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은 어땠을까? “소통의 힘을 배웠다,” “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다,” “차별을 모르고 지내 온 자신이 부끄러웠다,” “행동하는 목소리가 되겠다.” 등 학생 소감문의 내용을 읽어보며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여건이 악화되면서 학생 활동 중심 프로그램 운영이 힘들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로드 투 랜선 북 토크”를 통해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또 다른 콘텐츠의 온라인 학생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첫발을 내딛게 도와주신 대인고 김관성 선생님, 문일여고 윤준조 선생님, 송도고 송윤근 선생님, 인하부고 김계황 선생님, 인천초은고 이강숙 선생님, 인천해송고 김의정 선생님, 인천대건고 박지연 선생님께 이 글을 통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한다.





왕길초등학교 쌍방향 온라인 수업

변윤섭 | 인천왕길초등학교 교사



온라인수업을 맞이하다.

2019년 3월에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에 신규 지정을 받아 더 멋진 2020년을 다짐하던 이듬해 1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사 이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사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TV로 마주하게 된 온라인 수업 발표.

어떻게 수업을 해야할지, 학생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출결과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감이 도통 잡히지 않았다. 다만 학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과 유의미한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교직원 토론 모습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여는 과정으로 올해 초 본교 강당에서 교직원 다모임 회의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수업의 방향과 철학이 결정될 수 있는 골든 타임에 왕길초는 어려운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이고 놓치기 쉬운 과정인 토론과 심사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관심이 교원들에게 집중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철학으로 임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치열하게

토론했다.

그 결과 각 학년에서는 획일성을 거부하고 학년 수준에 맞는 온라인 교육 실천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교의 의사결정의 중추인 기획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교육적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내용과 결과

실험1

스카이프 vs Zoom vs 카카오톡 어떤 프로그램이 쌍방향 수업에 효과적일까?

☞ 2학기 전교생 전학급 전담교사 Zoom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 실시

실험2

안내장 수합이 안 되는데 편리하게 학부모 의견을 수합할 수 있을까?

☞ e알리미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게 학부모 회신 업무 처리

실험3

국민 플랫폼인 E학습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 반별로 과목 정해서 콘텐츠 직접 제작 ☞ 학년 과목별 업로드 방에 각자 탑재

☞ 학교 자체 온라인 지원 플랫폼 왕길 TV (<https://bit.ly/행복왕길TV>)에서 영상 링크 추출

☞ 반별 강좌에 날짜별로 강좌 복사

실험4

내 맘같이 학생들 온라인 프로그램을 설치해줄 수 있을까?

☞ 팀뷰어 프로그램 활용하여 원격으로 학생 컴퓨터 접속하여 모든 프로그램 설치

실험5

학교에서 미래형 블렌디드 교육을 하려면 어떤 환경이 가장 이상적일까?

- ☞ 전담 교사 포함 모든 교사 교수형 스마트패드 with 전자펜 보급
- ☞ 기획위원회, 동학년 협의 등 회의 시 종이문서 Zero, 전원 스마트패드 지참 회의
- ☞ 전 교실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
- ☞ 화상카메라 및 고성능 마이크 2학기 학사 시작 전에 보급 및 사용법 연수 완료

실험6

왕길 학생들 콘텐츠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

- ☞ 고클립 프리미어 프로그램 유료 라이선스 20개 구입
- ☞ OBS, 미리캔버스, 패들렛, 퀴즈앤쇼우, 구글문서 활용, 스마트패드 화면 녹화 등 다양한 온라인 수업 방법 및 콘텐츠 제작 방법 발굴
- ☞ 동학년 단위, 학년군 단위 동료 교원들과 네이버 클라우드로 아낌없이 실시간 공유



미래를 준비하며

왕길초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형 교육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형 교육 공간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유희 교실 및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실감 액션 Wall 놀이 공간 조성, 자전거 교육 학교 둘레길 조성 및 라이선스 제도 운영, 문화예술 전용 창의적 체험실 등을 구축하여 학생 전면 등교 시 곧바로 교육과정 전개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무도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중단없는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철학과 제자 사랑의 마음으로 일단 도전해보고 부딪쳐 보았던 7개월의 왕길 교직원들의 수 많은 노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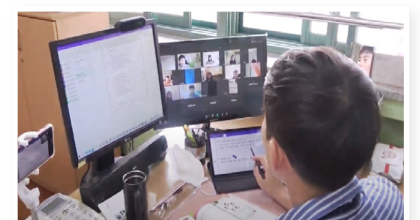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찬란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물리적 지원 및 지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장선생님의 결단력과 빠른 위기대응능력! 선생님들의 어려움 다 헤아려주시고 어떻게든 도움 주시려는 교감선생님의 따뜻한 지도 조언!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 지금의 왕길초 행복 교육력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 사랑과 교육자의 철학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전국의 교원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제자들 교육에 온 정성을 쏟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학부모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의 모습을 떠 올리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학년 수준에 맞는 온라인 교육실천 모습



미래를 준비하는 노승근 교장선생님



랜선자치(온라인 학생자치) 시대를 열어갑니다!



김요섭 | 민주시민교육과 교사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체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학생의 자치와 참여 활동은 이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변화된 교육 환경에 걸맞은 다양한 방식의 학생자치활동을 모색하는 기회와 새로운 고민들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학생자치활동으로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갖춘 실천하는 민주 시민을 기르고자 합니다. 특히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을 기반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학생자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8월 '온라인 학생자치(랜선자치) 안내서'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학생자치활동 및 관련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방식의 학생자치 활성화로 인천미래교육 및 학교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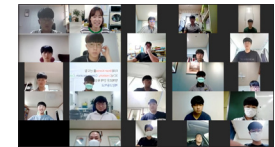


이를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학교의 주인공으로 세우려는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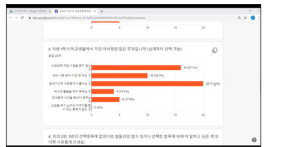
인천계양고등학교의 〈온라인 공감 토론회〉

코로나19 상황속 소통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와 관련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학생 주도 교육과정과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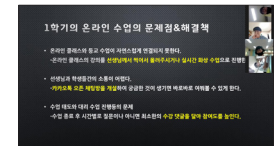
- ◆ 토론회 주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학교교육
- ◆ 소주제 : 코로나와 함께 한 1학기의 학교교육 상황은 어떠했는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의 의미는 무엇인가?
 - 앞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앞으로 학교의 수업과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 ◆ 계획 안내 및 온라인 사전 신청(학교 홈페이지, 학생 개별 문자, 학생회 SNS 등)
- ◆ 발제자 토론방법 교육 및 참여자 사전질문지 제출
- ◆ 온라인 공감 토론회
 - ZOOM 활용한 토론, 발제자 발표 및 자유 토론, 학생회장은 사회자의 역할 수행, 지도교사는 보조적인 역할 수행
- ◆ 토론 후 활동 평가 및 학생부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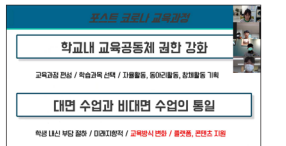
교장선생님 참여속에 진행



학생 설문조사 발표



학생들이 바라본 1학기 수업과 평가 방식



학생들이 제시하는 대안



구산중학교
2학년 이은교 학생

2학기에는 1학기 때 하지 못했던 여러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지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낙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라도 모두 진행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 시대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학생자치활동도 변화된 모습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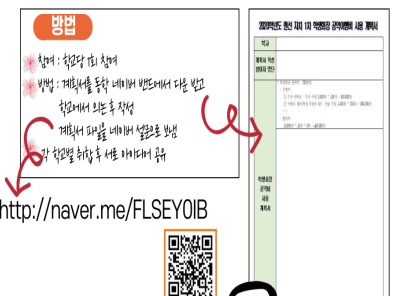
부원여자중학교
3학년 정다인 학생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학생회 활동들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 삼는다는 말이 있듯이 2학기에 있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학교 축제도 온택트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2020년은 한 번뿐이기에 우리 학교 학생회는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2020년 1차 동학 랜선 자치활동(온라인 자치)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계획서 작성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200만원 사용 계획서 작성하고 푸짐한 선물 받기



성황리에 막을 내린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김형민 | 인천상정고등학교 학생기자

2020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가 8월 14일 인천로얄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되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가 열리기 전, 정책 공모전과 청소년 정책-예산학교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 정책-예산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에 대해 안내했다. 또,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과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다듬어진 학생들의 정책이 학생대상 선호도 조사를 통해 토론회 안건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1부 정책 제안

1부 정책 제안 시간에는 토론회 안건으로 선정된 8개의 정책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내년도 교육정책에 반영될 안건을 온라인으로 투표했다. 선정된 토론회 안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안건이 70% 이상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8개의 안건 중 <학교간-지역 연계 진로활동 프로그램>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이 정책은 현재 진로교육이 교실 속에 갇혀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생 개인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주된 내용이다. 특정 진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학교를 지정해 학생들이 개설된 진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내 사업체와 공공기관을 연계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2부 정책 토론

2부 정책 토론 시간에는 '진로교육'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대표 학생 2인과 최향철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대표 학생 2인은 진로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했고 장학사는 인천 진로교육의 현황과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같은 행사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인천교육의 질이 전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담당자 인터뷰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김요섭 파견교사)

Q.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통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대표적인 제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작년 100인 토론회 결과, 창의융합캠프 운영, 자유학기제 개선, 학생자치교육 등 다양한 안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최종 선정된 8건의 정책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내년도 교육정책에 반영됩니다. 대표 정책으로는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교류, 학교간 지역 연계 진로체험, 초등 학년형 스포츠클럽 축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Q. 정책 토론회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A. 민주주의의 발전은 주권자의 참여에서 시작합니다. 학생 여러분이 교육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에 교육청은 학생들이 원하는 정책을 더욱 힘 있게 펼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시작은 학교 안에서의 참여일 것입니다. 학생회 활동, 기타 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학교에서 교육의 주체로 당당히 서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참여 학생 인터뷰 (사회자 인천상정고등학교 2학년 이하민 학생)

Q. 가장 인상 깊었던 정책은 무엇인가요?

A. '질 높은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보급'이 인상 깊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원격 수업에 대해 불편함과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정책을 보며 공감이 많이 갔고 그 필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인천 학생이 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인상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참여 학생 인터뷰 (정책제안팀 부평여자고등학교 2학년 정은수 학생)

Q. 제안하신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A. '학생 자치교육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과 자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자치활동의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각 학교에 학생 자치교육에 대한 예산을 부여하여 학교별 자치교육 및 학교정책제안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위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이번 행사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앞으로 청소년 100인 토론회와 같은 청소년 참여 활동의 범위가 확장되어 학교 내 자치와 교육환경 구성의 주체가 학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 강윤민 | 서울수명초등학교 교사
그림 정다운 | 인천석천초등학교 교사



10시 등교면 10시 5분에 올거지....



만나서 수업도 못하는데 과제라도 열심히 해야겠지요?



불타는 소통 어디가고 불꺼놓고 침통 나혼자 고통



빨리 코로나 끝나고 손잡고 뛰어놀았으면

2020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김미현 | 안전총괄과 교사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 '19.9.), 통학버스 사망사고(태호·유찬이, '19.5.) 등이 발생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이 교통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 및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과 5항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를 완료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설치하는 순서를 정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설치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구간에 한해 20%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인교통단속장비 90교 주변 137대, 신호기 56교 주변 73개소 설치에 6억 8,080만원을 분담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시인성 강화 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교 1,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6,000만원을 전출하여 학교에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보차도 분리사업

또한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등·하굣길 교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 내의 안전한 보행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 내 보차도 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22년까지 관내 전학교 보차도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교는 보차도분리설계를 필수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올해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81교를 대상으로 7억 5,312만원을 지원하여 보차도 분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올해 8월 3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므로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이므로 이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2020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 워킹 스쿨버스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는 ‘걸어다니는 스쿨버스’라는 의미로, 스쿨버스가 정류장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태우고 내려주듯이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집단 보행시스템입니다. 올해 하반기 인천에도 선정된 3교(인천동막초, 인천구월서초, 인천부개초)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워킹 스쿨버스의 교통안전 지도사는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인력풀 및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 가지 더!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취지로 현재 도시부 주요도로, 대중교통이 통행하는 간선기능도로는 제한속도 60km/h → 50km/h로, 주택가, 스쿨존 등 규모가 작고, 차량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60km/h → 30km/h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올해 12월부터 전면시행 예정이니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핵심은 운전자 처벌이 아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교육·홍보 및 규제·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 실수가 있더라도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로환경 및 시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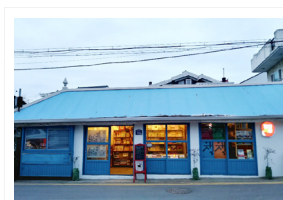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 × 동네책방 산책 프로그램

동네책방으로 산책 가고~, 동네책방에서 산책 읽고~

정남림 | 평생교육체육과 주무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X 동네책방 산책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의 독서활동과 문화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지역서점이 저마다의 주제와 감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가운데, ‘동네책방으로 산책 가고~, 동네책방에서 산책 읽고~’라는 부제를 달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딸기책방, 마샘, 북극서점, 책방산책, 4곳의 지역서점과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역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함께 만나고 체험하는 행사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동네 지역서점을 산책 삼아 둘러보며 따뜻한 감성을 키우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딸기책방 외부



딸기책방 내부

딸기책방에서는 인천에 거주하며 딸기책방을 통해 작가로 데뷔한 그림책 작가들과 북토크를 운영했습니다. 8월 26일(수)에는 ‘우리 동네 그림책 1. 섭순’으로 고진이 작가와의 북토크를 온라인 SNS(인스타그램) 실시간방송으로 운영하였고, 9월 23일(수)에는 ‘우리 동네 그림책 2. 풀이 나다’의 김희정 작가와의 온라인 북토크가 진행하였습니다.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33

서점명	행사명	월일	대상(인원)	주요내용	문의
딸기책방	우리 동네 그림책 1. <섭순>	행사 완료	누구나	- 인스타 라이브 북토크 - 고진이 작가의 그림책 낭독 - 작가 사인본 도서 증정	070-8865-0385
	우리 동네 그림책 2. <풀이 나다>	행사 완료	누구나	- 인스타 라이브 북토크 - 김희정 작가의 그림책 낭독 - 작가 사인본 도서 증정	

책방산책에서는 문학성과 예술성을 담은 그래픽노블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인스타 라이브 - 김금숙 작가와의 북토크’(9.26.(토))를 진행하였고, 어린이 출판만화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는 ‘인스타 라이브 - 하민석 작가와의 북토크’(10.24.(토))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그림책, 문학, 과학 등 분야별 큐레이션 도서를 소개하는 ‘심야책방(11.13(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인천시 계양구 향교로 5번길 23,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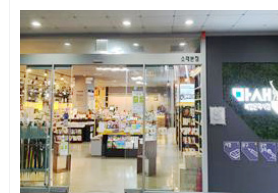


책방산책 외부



책방산책 내부

서점명	행사명	월일	대상(인원)	주요내용	문의
책방산책	만화 보물섬 1. 김금숙 작가 북토크	행사완료	청소년, 학부모	- 인스타 라이브 북토크 - 작가 세계, 그래픽노블 출간 과정, 감상법, 질문과 답변	032-277-2232
	만화 보물섬 2. 하민석 작가 북토크	행사완료	아동, 학부모	- 인스타 라이브 북토크 - 어린이 출판만화와 작가세계, 출간과정, 감상법, 질문과 답변	
	인스타 라이브 심야책방	11. 13.(금) 19:00~21:00	초50이상 청소년	- 그림책, 문학, 과학 등 분야별 큐레이션 도서 소개하기 - 읽고 싶은 책 골라 읽고, 감상 나누기	



마샘 외부



마샘 내부

마샘에서는 유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책.가.방(책으로 우리 가족이 노는 방법)’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가족은 ‘책.가.방 싸기’로 10월 5일(월)부터 서점을 개별 방문해서 책을 고르고, 가정에서 그 책으로 우리가족만의 독서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가족별로 활동결과물을 마샘 서점에 제출하면 서점 내 전시공간에 예쁘게 게시하여 서점을 방문하는 모두가 공유하는 ‘책.가.방 풀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천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75, B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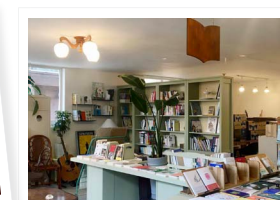
서점명	행사명	월일	대상(인원)	주요내용	문의
마샘	책.가.방 책으로 우리가족이 노는 방법	행사완료	유아동 가족	- 책가방 싸기: 선정가족 서점 개별방문, 책 구입, 가정에서 독후활동하고 결과물 만들기	010-3865-4974
		10. 22.(목) ~ 11. 4.(수)		- 책가방 풀기: 가족별 활동결과 제출하고 책 선물받기 - 책가방 나누기: 독서전문가 논평과 함께 활동결과물, 책 전시	

북극서점에서는 11월에 동양 요괴도감의 더 쿠 작가와 함께 하는 ‘북토크’, 우지현 작가와 함께 하는 ‘나의 작은 그림책 만들기’, 우인영 작가와의 ‘월데이 아트 클래스’ 프로그램이 운영 될 예정입니다.

📍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221번길 27, 2층



북극서점 외부



북극서점 내부

서점명	행사명	월일	대상(인원)	주요내용	문의
북극서점	더 쿠 작가 북토크	11. 13.(금) 18:00~20:00	초40이상	- 동이귀 괴물집, 동양 요괴도감의 작가 더쿠와 함께하는 북토크	book geuk @ naver. com
	우지현 작가 작은그림책 만들기	11. 14.(토) 16:00~19:00	초40이상	- 혼자 있기 좋은 방, 우리는 왜 행복해야 할까의 우지현 작가와 함께하는 나의 작은그림책 만들기	
	우인영 작가 월데이 아트 클래스	11. 15.(일) 14:00~16:00	초40이상	- 실크스크린으로 독서 굿즈 만들기 - 책을 모티브로 참가자가 직접 도안 만들기	



교육기관 최초!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 ‘코로나19 꿈작 마!’를 소개합니다

박승희 | 코로나19 학교안정화지원 T/F 팀 파견교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전국 교육기관 중 최초로 보건교사로 구성된 코로나19 학교안정화지원 T/F팀(이하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T/F팀에서는 포스터, 동영상 등 다양한 보건교육자료를 만들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로나19 꿈작 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꿈작 마!’ 스마트폰 앱은 미래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 건강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처음 계획 할 때에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소책자로 담아 제작하려 하였으나, 국민 95%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소책자보다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은 크게 건강관리, 대응, 보건교육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건강관리 영역은 학생 건강 상태 자가 진단, 나의 동선 기록 등 건강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서 학생 건강 상태 자가 진단을 시행하거나 예전에 학교에서 받았던 문자를 찾을 필요 없이 어플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사이트로 연결하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응 영역입니다. 대응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내 집 주변 선별진료소 위치, 현재 인천시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자 현황과 동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교육 영역입니다. 보건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카드 뉴스 형식으로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T/F 팀에서 개발한 미디어 자료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보편화 된다면 포스터, 영상 등과는 차별화 되는 교육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알차게 담은 ‘코로나19 꿈작 마!’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코로나19 꿈작 마!’로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꿈작 마!’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후반기 원구성 -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힘찬 새출발 -

손상겸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2020년 7월 2일(목)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원구성이 새롭게 구성되었다. 임지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정호 제1부위원장, 정창규 제2부위원장, 김강래 의원, 김종인 의원, 김진규 의원, 이오상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반기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2020.7.20.(월) 강화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방문



2020.7.27.(월) ~ 7.28.(화)
직속기관 방문

교육위원회는 2020.7.20.(월) ~ 7.21.(화), 7.27.(월) ~ 7.28.(화) 기간 동안 5개 교육지원청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를 비롯해 교육과학정보원 등 직속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교육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교육현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2020.9.9.(수) ~ 9.15.(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 5차 교육위원회

제265회 임시회 기간에는 2020.9.9.(수) ~ 9.15.(화) 5차례의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그동안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급식제공을 못한 무상급식비 310억원을 감액하여,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보다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원격수업 물품구입, 원격수업PC지원, 교실 무선망 구축 등의 예산을 심사하여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인천시교육청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천시교육청 집행부 및 학부모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원격수업 운영방안 및 이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방안, 사각 지대에 놓인 돌봄학생 지원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학생,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찬 행보를 펼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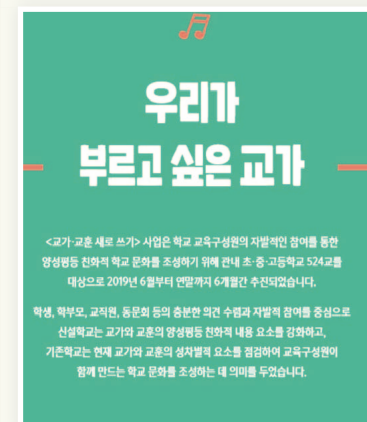
교육부 주관 2020 시도교육청 평가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 우수평가



우수정책 1. 성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

- ◆ ‘성 인권, 삶을 [담:따]’ 정책 추진을 통해
 - 주인되는 삶을 [담:따]: 성 평등한 학교문화 기반 마련
 - 회복하는 삶을 [담:따]: 인천형 성 인권 공동체 회복교육 운영
 - 상생하는 삶을 [담:따]: 교육청과 마을(지자체-유관기관-시민)이 함께 하는 인천지역 성 평등 학교 문화 조성



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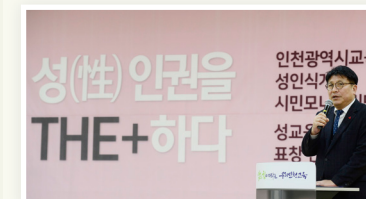
① ‘성 인권, 삶을 [담:따]’, ② ‘성 인권을 THE(+) 하다’

직업계고 비중 확대

- ① ‘인천직업교육박람회(Job Concert)’ 등을 통해 신입생 충원율 향상 (전년 대비 0.42%)
- ② 특성화고 1개교를 ‘인천대중예술고’로 전환

◆ ‘성 인권을 THE(+)하다’를 통해

- 예방부터 사안 해결까지 과정 시민 참여
- ‘스쿨미투비상대책위원회’
→ ‘성인식개선위원회’로 전환
- 성 관련 문제예방 및 해결을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



우수정책 2. 직업계고 비중 확대

- ◆ 다양한 홍보 전략과 맞춤형 진로·진학 설명회, ‘인천직업교육박람회(Job Concert)’등을 통해 신입생 충원율(전년 대비 0.42%)을 높이고



- ◆ 특성화고 1개교를 인천대중예술고로 전환하여 직업계고 비중 확대를 도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2020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는 17개 교육청을 시지역, 도지역 2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하며, 전년 실적에 대해 ‘공교육 혁신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구성원 만족도 제고’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의 정책은

1. 성폭력 예방및 근절대책 / 2. 직업계고 비중 확대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우수한 정책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사랑 밤길걷기 IN 인천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그리운 사람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응원하기 위한 걸음!
함께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생명사랑 밤길걷기 IN 인천!**

청소년들에게 생명사랑의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생명사랑 밤길걷기 IN 인천'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자 걷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5.8km, 11.5km 중 선택해 참여하였으며, 각각의 거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 5.8명,
OECD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 11.5명을 의미합니다.

인천의 청소년 자살률은 작년 대비 36% 줄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우울감을 겪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함께 만들어요!

“울하는 홀로 걷는 것이 아쉽지만
여전히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SUICIDE
PREVENTION
CAMPAIGN
—
LIFELINE KOREA

공동주최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생명의 전화 / TBN경인교통방송 / 기호일보

코로나 19 종식까지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개인방역수칙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등교 전 자가진단 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호전 되면 등교합니다.

개인방역 보조 제1수칙

학교생활 중 누구나 마스크 착용 꼭 합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육부 코로나19 지침 제2-2판〉

인천시교육청과 카톡 친구해요!



- 다양한 **교육소식과 이벤트 정보** 공지
- 각종 **행사 및 채용, 시험 일정** 등 유익한 정보 제공
- 코로나19 등 **긴급정보 실시간 메시지** 발송



1. 카카오톡 실행 2. '인천시교육청' 검색 3. 채널 추가하기



QR코드



초성을 맞춰라! 아래 힌트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완성해주세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2020년 11월 20일(금)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QUIZ

인천의 미래교육, **다** **오** **인** **오** **인** **다** **기** **오** 으로 열어갑니다.

〈힌트〉 (인천교육소식지 p.7)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동아시아가 당면한 공동의 위기상황과 문제들을 인지하고,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며,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

참여 방법



카카오톡 검색창에
'인천시교육청' 검색 후
채널 추가



참여하기 버튼
클릭



댓글쓰기 버튼을
누른 후 정답 작성



이벤트 게시글에
'아래링크에 응모하기' 링크를 누른 후
개인정보 동의 등 필수항목 등록
(상품 수령 위해 필수)

- ▶ 결과발표 : 2020.11.25.(수) 인천시교육청 카카오톡 채널 안내 예정
- ▶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100분께 3,000원 편의점 상품권을 드려요.
-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카카오톡 이벤트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코로나 일상은 달인을 만듭니다

서로를 위해 착용하는 **배려**의 달인
눈빛으로 미소를 읽어내는 **소통**의 달인
마스크를 잘 소화하는 **패션**의 달인
정책을 잘 지키는 **나라사랑**의 달인